

한-일 아버지포럼 인 미야기

— 한-일아버지 선언 —

우리들은, 셔츠주머니에 『아버지』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품기 위해 각자 바다를 건너왔으며, 『아버지』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, 딱딱한 옷옷을 벗고, ‘안녕하세요’라고 말을 건넌 수 있으며, 그리웠던 친구처럼, 몇년씩이나 서로 마주하고 있던 이웃처럼, 어깨에 힘을 빼고, 마음을 열고, 일본에서 처음으로 ‘한일 아버지 포럼 인 미야기’에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.

한국에는 ‘시작이 반이다’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. 비록 우리들은 이 포럼이 시민수준, 도민수준의 일반시민의 교류라는 작은 시험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, 현실에 산적해 있는 가정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전혀 힘이 부족할지 모르지만, 그러함에도 정면으로 맞서기를 원하는 ‘아버지’들의 숨결만은 알아준 것 같습니다.

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, 문화를 살아온 우리들이 미래를 함께 살아가자면, 서로의 문화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중하며,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이해하며, 그것에 기쁨을 갖는 바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,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.

내일부터는 또다시 바다를 사이에 두고, 서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들이, 다음번 만날 때에는 반드시 ‘친구’라고 서로를 부르며, 드라마를 좋아하는 부인도 부러워할 정도로 『아버지』를 술안주로 맛있는 술을 나누는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해 갈 것을 선언합니다.

2008 년 2 월 3 일

한-일 아버지포럼 인 미야기
참가자 일동